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정책
(시안)

2021. 8. 31.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위원회

총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나삼진

서 기: 이경우

위 원: 강상석 정지호 박대근 나삼진 이경우 박사무엘
전남수 은요셉 신용환 박재철 정수열 이신희

재미총회 교육정책 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총 무: 나삼진

위 원: 강영안 김성수 나삼진 박대근

인사말씀

주님의 은혜가 온 총회와 산하교회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마지막 당부도, 사도들의 관심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신앙교육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교회의 건강도는 물론 내일의 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혹은 내부의 부패에 의해서 몰락했습니다. 교육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교육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미국의 주류교회들이나 한국의 교회들도 교육적 사명을 새롭게 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COVID-19의 팬데믹 상황은 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세계도, 또 사회도 교회도 처음 겪는 어려움 앞에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와 교육이 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가 부족한 교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였고, 교육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교육위원회는 제36회 총회에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기로 청우너하였고, 총회의 허락을 받아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해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상당한 기간과 경비가 소요될 일이었지만, 한국총회에서 이 문서 작성에 참여한 바 있던 실무책임자들이 재미총회 소속으로 있어 당시 작성되었던 한국총회의 교육정책을 기초로 하고 미국 한인교회와 재미총회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시안을 완성하고 제37회 총회를 앞두고 ZOOM환경에서 세미나와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8월 31일에 연구진들의 요약된 발표를 듣고, 목회자나 교육지도자들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총회 홈페이지에 교육정책(시안)을 발표하고, 두 주 동안 전국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위원들이 이를 다듬고, 교육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준비되면 각 교회가 교회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서가 총회에서 채택된다면 총회 후 바로 영역본을 만들어 전국교회에 배포할 예정인데, EM 사역자들에게도 지침으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

총회교육위원장 나삼진 드림

알리는 말씀

이 '재미총회 교육정책서'는 제36회 총회의 결의로 총회교육위원회가 구성한
교육정책 연구위원회가 '재미총회 교육정책' 준비한 시안입니다.

8월 31일 세미나와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토론 결과와
총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전국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다듬어 제37회 제출, 총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주실 때 띄어쓰기와 오탈자는 보지 마시고, 내용을 잘 살피셔서
전국교회와 목회자들께서 다양한 이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곳: samjinna@msn.com

차례

인사말씀/4

재미총회 교육이념과 목적/6

각 단계별 교육목표/6

유아유치부-6

초등부-6

중고등부-7

장년부-7

시니어부-8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정책/9

1. 신앙교육의 중요성/9
2. 우리 시대의 사회 문화/11
3. 오늘의 미국 한인사회 교계/13
4. 재미총회의 역사와 교육철학/16
 - 1) 재미총회의 형성/13
 - 2) 재미총회의 성장과 발전/14
 - 3) 고신교회의 교육정신/14
5. 재미총회 교육의 방향/16
6. 각 신앙공동체가 해야 할 교육적 노력들/17
 - 1) 가정의 교육적 책임/17
 - 2) 교회의 교육적 책임/19
 - 3) 노회의 교육적 책임/20
 - 4) 총회의 교육적 책임/22
7. 맺는 말/27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발전 계획(2019-2024)/24

재미총회의 교육 이념과 목적

교육이념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Westminster Standards: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문답, 예배지침, 교회정치 및 권징조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교육목적

성경을 가르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한다(예배적 인격).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우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인화적 인격).

자기의 존재 의의와 특별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문화적 인격).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여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경비케 한다.

부서별 교육목표

유아/유치부(4-6세) 교육목표

-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안다.
-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듣기를 좋아한다.
-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잘 지낸다.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친구를 돕는다.
-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고 돌본다.

초등부(초등학교) 교육목표

-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알고, 예배한다.
-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힘쓴다.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한다.
-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하나님의 자녀 됨의 신분을 알고 합당한 생활을 한다.
- 친구와 사랑으로 교제하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한다.
-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사랑하고 돌본다.

중고등부(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목표

- 성경을 신앙생활의 원리로 삼는다.
-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구원사역의 의미를 안다.
-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를 확립하고, 자신의 개발을 위해 힘쓴다.
-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확립한다.
- 교회의 참 뜻을 알고, 교회생활에 함께 참여하며 신앙생활에 힘쓴다.
-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탐구, 개발하고, 대학 진학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사랑하며 주변문화를 분별할 줄 안다.
-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를 알고, 창조-타락-구속의 체계를 알고 가치관 확립에 힘쓴다.

대학/청년부 교육목표

-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적 교리를 탐구하여 개혁주의에 입각한 신관, 인생관, 세계관을 확립한다.
- 비기독교적 사상 체계와 여러 제도에 대하여 기독교적 입장에서 연구, 비판하는 정신을 가진다.
-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의 권위와 제도를 바로 이해하여 순복하고, 성실한 마음과 신앙적 지성으로써 교회를 봉사한다.
- 가정, 사회, 국가 및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정복할 수 있는 신앙과 생활 능력을 가진다.
- 신앙과 삶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쓴다.
- 결혼과 가정의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고, 경건한 교제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며 가정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급변하는 사회를 통찰하고,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며, 주체성 있는 봉사활동을 한다.
- 모든 직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알고, 거룩한 의욕을 가지고 능률 있게 일한다.
- 다문화사회인 미국사회에서 이웃과 직장 및 비즈니스 세계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산다.

장년부 교육목표

-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예 힘쓰며, 복음을 전한다.
- 여호와의 집의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며, 사랑과 덕과 감화력 있는 설득으로 연소자들을 지도한다.
-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며, 경제적 책임을 지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이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장로 교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된다.
- 하나님이 주신 일과 직업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혁주의 신앙에 투철한 인물이 된다.

시니어부(70세 이상) 교육목표

- 노년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다.
-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
-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신앙전통에 대해 감사하고,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다음세대에 전수한다.
- 교회와 이웃에서 시니어로서 존경받는 태도를 갖고, 여러 방식으로 봉사하는 기회를 갖는다.
- 은퇴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제2부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정책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의 신앙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해외한인교회가 갖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기초로 바른 교회를 추구하여 왔다. 재미총회는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 교육과 훈련, 문서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신앙교육에 진력해야 했지만, 교회들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여 교육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총회는 이 땅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각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여건에 따라 예배와 교육,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를 위해 노력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2천년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현상을 생각하며, 미래에 더욱 견고한 기초를 가진 개혁주의 교회건설을 위해 우리는 그동안의 교육적 노력과 역량을 정리하여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육정책을 제정한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교육적 사명을 기초로 하고, 오늘의 미국의 문화와 사회 현상을 분석하여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노회, 각 교회의 교육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이 교육정책은 우리 사회의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교육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재미총회가 신앙교육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2020년대 미국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재미총회가 지향할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어떻게 교육에 힘쓸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기독교 신앙공동체인 재미총회와 각 노회, 각 교회와 가정에서 언약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고신총회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중차대한 과업을 지도 감독하는 총회와 교육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 될 지역교회가 신앙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신앙교육의 중요성

재미총회가 신앙교육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구약 성경에는 가르치는 교육적 사명이 특별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약 성경의 강조

신명기 6:4-9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교육 명령이 나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교육 명령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작정하신 구원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수단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 준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민족의 축제인 절기까지도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상기시켜 주는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 유대 왕 여호사밧은 레위 족속을 선발하고 그의 왕국 곳곳에 파견하여 여호와와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였으며(대하 9:8-11), 에스라는 레위 족속 13명의 보조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언약의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시편은 물론 예언서에도 교육에 관한 많은 요청과 명령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약 성경의 강조

교육에 관한 강조는 신약 성경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수님은 종종 ‘랍비’ 또는 교사라고 불리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고(teaching), 복음을 전파하시고(preaching), 병자를 고치시는(healing) 사역이었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일은 교회가 힘써야 할 일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사로 불리워졌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는’ 탁월한 교사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다(마 7:28-29)

그리고 친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하셨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다. 이 명령을 따라 사도들 역시 가르치는 사역을 강조하면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사도들의 활동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고 권고하였다. 이처럼 교육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며 사도들이 몸소 실천한 거룩한 부르심이다.

개혁교회의 전통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한다는 원리를 강조하고 이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루터는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립학교에서 의무교육을 강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칼빈도 교회에서의 교리교육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을 통해 성경에 기초한 교육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개혁교회는 언약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혁교회는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바를 그대로 고백하고 전승하며 가르치는 일을 교회의 본질적인 한 사명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시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리문답을 가르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들을 설교의 형태로

만들어 주일 오후 예배시에 가르치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리교육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교리교육적 기초가 개혁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

가정, 학교, 사회생활의 변화

언약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히 아동에 대한 가정의 신앙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과 학교교육 및 현대사회의 세속화 현상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다. 현대의 가정은 교육적 기능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세속화 경향 역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하게 보여 준다. 현대의 학교교육은 반 신앙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이 더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가 없다. 현대사회의 비인간화와 물질주의적인 병폐도 신앙교육을 통한 인간회복운동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익명성, 개방성, 다원성 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신자 부모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는 덕목들의 교육이 더이상 배양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실 속에서 기독교공동체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내일의 가정과 교회도 결코 건설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2. 우리 시대의 사회와 문화 현상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교육은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적 현상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인간은 언제나 사회속에서 살아가며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신앙교육도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변 사회와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제 기독교공동체와 사회문화적 환경간의 상호역동적 교호작용을 염두에 두면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세속주의, 내재주의, 과학주의, 기술주의, 행복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나 삶의 방식을 한 마디로 하자면 세속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로 등장한다. 세속주의는 종교를 배제하는, 탈종교적인 삶의 방식을 일컫는다. 오늘날 세속주의가 기독교와 여타 종교를 대신하는 하나의 커다란 '대안 종교'가 되었다. 세속주의의 특징은 철저한 내재주의, 곧 삶과 현실의 초월적인 차원을 부정하고 이성과 경험으로 접근 가능한 내재적 차원만을 참된 현실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경험과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가치도 없다. 두번째 특징은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개선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믿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세속주의는 기술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인간에게 해방과 구원을 가져올 수단은 과학 지식과 과학 기술밖에 없다고 믿는 점에서 세속주의는 거의 필연적으로 과학주의와 기술주의를 핵심 사상으로 삼고 있다. 세번째 특징은 세속주의는 내세의 행복이나 복락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이 때 행복은 욕구 충족으로부터 오는 만족의 상태를 일컫는

다. 삶을 욕구 충족의 과정으로 보고 삶 속에서 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오직 욕구와 필요 충족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가정, 교회, 학교, 회사, 그 외 모든 활동은 욕구와 욕구 충족의 관계로 이해되기 때문에 교회 속에 세속주의가 들어올 때, 교회도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기관으로 이해된다.

포스트모더니즘, 상대주의, 다원주의

진리와 관련해서 우리의 시대는 인간의 주관성과 감성, 그리고 이미지와 경험을 강조한 나머지 진리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성과 다원성을 내세우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또는 관점주의를 내세운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 통칭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식론적으로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상호 갈등하는 다양한 신념체계들 가운데서 판결을 내려주는 이른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합리적인 수단들, 곧 누가 옳바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통의 잣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사상의 핵심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해서 문화 현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미의 해체와 다원화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제도나 전통적 가치는 일정한 실재와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가정, 학교, 국가 등 모든 기관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참, 거짓, 선, 악, 아름다움과 추함도 그와 상응하는 현실이 실재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제도는 임의적이며, 우연적이며, 불변하게 부여된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고, 참과 거짓, 선과 악, 미와 추도 인간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느낌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들에 대응하는 어떠한 객관적 실재성도 없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이러한 생각은 당연하게도 다원주의로 이끈다. 정치, 종교, 문화, 예술, 교육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원성 추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등장한다.

반기독교, 탈종교, 종교다원주의

특히 기독교와 관련해서 오늘의 사상적, 문화적 흐름은 직접적으로는 반기독교 운동으로,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면 탈종교 현상으로,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실제로 현존하는 상황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종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보인다. 가정을 해체하기까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방식과는 다른 동성 결혼을 하나의 대안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이미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에서 나타나고, 전통방식의 결혼 관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자녀 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점점 늘어난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

앞에서 이야기한 인식론적, 문화적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오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임이 드러난다. 특별히 대중 문화산업은 폭력성과 퇴폐성으로 물들어 있다. 2020년대 사회는 절대자에 대한 의존보다도 인간의 능력과 자율성(human autonomy)을 더 신뢰하는 사회이며,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법이 되어가는 사회이다.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은 기독교 복음의 능력과 신앙을 인간 삶의 핵심적 영역으로부터 주변화시키는 특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 신앙이 점차 약화되고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등 인간 삶의 핵심적 영역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여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고신교회가 개혁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성경적 가치관에 깊이 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 현세를 추구하는 삶은 물질주의와 행복주의로 나타나는데, 기업은 고객 만족, 학교는 학생 만족, 교회는 교인들의 니즈(needs)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교회나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적 성공주의 혹은 소비주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교인들은 기독교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가치의 변화를 통해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 보다는 종교마저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교회도 자신의 요구에 충족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교인들이 교회 쇼핑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목회자가 일종의 엔터테이너가 되는 경우도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2020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공지능과 다양한 물리적이고 실용적인 기술 위주의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기술이나 기계에 더욱 의존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디어와 다양한 매체의 발달은 깊은 숙고와 묵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의 합리성(reason)과 과학, 그리고 과학기술을 신봉하던 현대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오히려 개인의 소외와 스마트 폰과 같은 기계와 미디어 의존적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2020년에 발생한 COVID-19의 창궐은 온 세계를 고통에 빠지게 했고, 이는 그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 사회와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예배의 상설화로 대면예배가 약화되고,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깊다. 앞으로 나타날 또 다른 바이러스와 다양한 천재지변은 교회의 예배와 다음세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만들 것이다. 아울러 교회의 복음전파와 세계 선교에도 다양한 방안과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신비주의의 혼재

2020년대는 과도한 기술과 과학이 주도하는 사회이면서도 동시에 이와 상반되는 주술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생활양식이 혼재하는 사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저하되어 이러한 주술적, 신비주의적인 문화의 보급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그 영향력도 더욱 확산되어갈 전망이다.

3. 오늘의 미국과 한인사회와 교계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교육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인간은 언제나 사회속에서 살아가며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신앙교육도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변 사회와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이나 이곳 미국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오늘의 미국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인교회, 나아가 재미총회 각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Post-Modernism의 거센 물결

교회도 시대적 상황의 거센 물결을 피해 갈 수는 없다.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가 상실되고 개인

주의와 인본주의가 상승하면서 오는 탈교회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 발생한 Pandemic 상황은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상실함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해 지고 선과 악,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을 상실한 소위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 공립학교의 성경적 교육 부재 환경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 환경은 비기독교적인 환경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인 경향이 되었다. 기독교 전통의 기반 위에 설립된 미국이 공립학교 교육에서 어떤 성경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온 지 이미 오래다. 많은 자녀들이 주로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비성경적인 교육 환경이 되었다. 성경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국개혁신교회 성도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고,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뜻있는 가정에서 홈스쿨링과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는 기관과 협력과 연대와 투자가 절대 필요하다.

증가될 개인주의와 개 교회 중심적 경향

극단의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서구 사회의 특수상황에다가 COVID-19로 인한 개 교회 중심적 예배와 활동이 증가하게 됨으로 공동체 의식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부노회와 몇 노회가 개최하는 SFC 하기 수련회는 작은 교회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 개최도 작은 교회에 유익한 전략이 될 것이다.

작은 교회 중심의 한인교회

재미총회 교육위원회가 시행한 교회교육센서스(2018)에 의하면 50명 미만이 출석하는 교회가 54%에 달하며, 80명 미만의 교회가 65%에 달한다. 이들 교회는 대부분 미국교회나 공공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가정집에서 예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작은 교회는 교육에 인력도 제한적이며, 재정도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 교회가 어떻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진지한 연구가 따라야 하며, 총회적으로 작은 교회를 위한 교육과 목회 전략을 수립하고 교회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일학교와 Youth Group의 급격한 감소

오늘의 미주 한인교회의 유년주일학교 혹은 유스 그룹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민사회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이 없는 교회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총회에서 실시한 제1차 교회교육 센서스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7%, 유스 그룹이 없는 31%로 집계된 바 있다. 한인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인교회의 차세대 숫자가 현저히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다음세대를 수용하여 교회의 주역들이 되게 해야 한다. 재미총회가 이러한 현상에 유의하여 목회와 교육에 분명한 전략을 수립하고, 총회와 노회, 교회와 가정이 이 일에 협력하여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청년 그룹의 교회 이탈

이같은 일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교회가 유스그룹은 물론 대학부 혹은 청년부 자체가 없는 교회가 많다. 미국 한인교회들이 다음세대가 일어나서 교회의 주류를 형성되어야 하지만, 한인들의 조기유학생이 사라지고, 미국 이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마다 그렇지 못하다. Kevin Hass가 한 교육보고서에서 밝힌 바대로 청년 그룹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문화만을 고집하는 1세대의 분위기, 다민족 사회에서 자라 다민족 친구들을 한인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불편함, 좋은 EM을 찾기가 쉽지않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 흥미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1세대 목회자들에게는 교회 내 차세대 교육기관의 우선순위가 낮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나 지원이나 지도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화 되어 가는 성도들

미국의 한인교회들과 같이 재미총회 교회들도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도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제1차 센서스의 결과 주일 예배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조사대상 62교회 가운데 11교회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회의 인구분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지금의 추세와 같이 노령화된다면 한 세대 후 재미총회의 존립이 가능할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재미총회의 미래를 볼 때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목회와 교육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

영어권 사역자의 약화

한인들의 이민역사가 오래됨으로 한인교회에서 영어권 사역자들은 2세가 일반적이는데, 적절한 사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미국문화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분히 문화와 가치가 다분히 미국적이다. 이들중에는 미국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1세 목회자들의 권위주의적 사역방식이나 태도, 그리고 의사전달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다. 1세 목회자가 지나치게 한국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거나, EM이나 2세 사역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제 1세 목회자들의 열린 마음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2세 사역자의 성숙을 돕고, 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들과 함께 독립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사역하도록 도와야 하며, 이들을 받아들이고 인격과 사역의 성숙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COVID-19로 인한 예배와 교육에 대한 새로운 환경

2020년에 시작된 COVID-19의 팬데믹 상황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 뿐만 아니라 신앙과 교회생활에도 엄청난 파고를 몰고왔다. 비즈니스,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적인 만남이 어렵게 되었고, 교회의 정상적인 회집도 불가능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Zoom 혹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다. 장기간 교회당에서 회집되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환경이 신앙습관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많다. 많은 교회에서 1년 이상 비대면 형식의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모이는 예배에 대한 관심과 성도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이전과 같은 모임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재미총회의 역사와 교육철학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목회와 교육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미총회의 역사와 교육이 걸어온 길과 재미총회의 교육철학을 정리해야 한다.

1) 재미총회의 형성과 발전

고신교회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로 촉발되어 이를 반대하며 투옥되었다가 출옥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았다. 해방 후 과거의 범과의 회개와 새로운 대한교회 건설을 주창하는 교회쇄신운동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고신교회는 한상동 목사의 순교신앙, 박윤선 박사의 개혁주의 신학, 손양원 목사와 장기려 박사의 절대 사랑의 실천운동, 송상석 목사의 절제운동이 융합되어 독특한 고신교회의 영성을 형성했다. 이들의 신앙적 영향을 받은 신앙인들이 미주지역에서도 개혁주의 신앙의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추진하면서 1985년 재미총회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고신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들이 독자적인 치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한국전쟁 후 고신교회 출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SFC운동이었다. 해방 후 교회쇄신운동에 참여한 부모들의 회개운동을 곁에서 보면서 자랐던 학생들은 1948년 고려신학교 주최의 청소년수양회에 참여하면서 독자적인 학생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닥불기도회, 고려신학교 주최 청소년 수양회, 한부선 선교사의 청년신앙운동이 하나가 되어 1952년 중앙학생신앙운동 전국대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을 지도하였던 한명동 목사가 기초한 학생신앙운동(SFC) 강령에서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의 기치를 들었다. 초기부터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강조되었고, 1953년 한국전쟁에 끝나고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흥반식, 이근삼, 오병세 3인이 방학에는 학생신앙운동의 추억을 따라 수양회로 모였고, 「SFC회보」를 간행하고, 한국교회에 유학생들의 그들의 소식을 전했다.

둘째는 미국교회에 속했던 초기 설립자들이 고신교회를 형성시키고 연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1960년대 중반 박재영 목사가 유학을 마치고 뉴저지제일한인장로교회를 개척하여 첫 고신교회가 시작되었고, 몇 지역에서 고신교회가 시작되면서 독자적인 치리회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1978년에 처음 고신노회 조직을 모색한 이래, 개혁주의선교회 조직(1978), 고신선교후원회 조직(1980), 고신노회 조직을 위한 서명 작업(1982. 4), 고신노회 조직 발기회(1982. 8), 제1회 고신인모임(1983. 10) 등으로 이어졌고, 1983년에 제1회 고신인 모임(1983. 12)으로 그러한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1983년 10월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책임을 지고 고신대학장직에서 물러났던 이근삼 박사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그의 생일 축하를 겸한 ‘고신인 모임’을 펜실베이니아주 포코노수양관에서 개최하고, 교단 조직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4년 봄에는 신현국 목사 미국집회를 계기로 이근삼, 신현국, 박재영, 김만우 목사가 모여 고신교단 조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고, 손창호(남미), 신현국(미 서부), 김만우(미 동부) 김용출(캐나다)로 하여금 지역책임자로 선정하여 노회를 조직하도록 준비하고, 한국총회와의 관계는 신현국 목사가 담당하고, 이듬해 고신인모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셋째는 이러한 모임이 더욱 구체화되어, 1984년 11월 5일부터 이틀간 모인 고신인 모임에서 노회 조직을 계속 연구하기로 하였다. 1985년 2월 4일 뉴욕 맨하탄에서 이근삼, 박재영, 김만우, 신현국,

김진경 등 고신교회 인사들이 회동해, 고신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포선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3개 항의 합의문을 작성, 서명하였다. 개혁주의 고신 순교신앙을 미주 교포사회에 선교하기 위하여 '북미고신 총노회'(가칭) 발기, 총로회가 창립되면 한국총회와 자매관계를 맺고, 행정과 치리는 교포사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독자적인 헌법을 갖기로 하였다. 이를 이근삼 박사가 한국총회와의 관계를 위임하며, 이 취지를 찬동하는 목사 7명, 장로 7명(그 가운데 절반은 교포교회 시무 목회자와 시무장로)가 되면 창립을 위한 조직회의를 갖도록 발기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2) 재미총회의 성장과 발전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5년 11월 11일부터 사흘간, 포고노수양관에서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로회를 발회하였다. 이때 창립 멤버가 된 네 교회와 고신출신 목회자 13명이 함께하여 수련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총노회를 조직, 박재영 목사를 총노회장으로 선출했다.

재미총회는 조직과 함께 초기부터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했는데, 제2회 총노회에서는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근삼 박사를 초빙하기로 하였고, 제4회 총회에서는 총노회를 동부노회와 서부노회로 분립하면서 총회로 승격하였고, 고신교회출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뜻을 함께했다. 제6회 총회에서는 신학교 설립위원회를 조직하고, 1990년 9월에 신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다미선교회의 종말론 열풍이 불 때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흥반식, 이근삼, 오병세 교수를 초청하여 순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8회 총회에서는 신학교 개교 준비와 함께 교장으로 박재영 목사를 선임하였다가, 1995년 이근삼 박사가 고신대총장에서 정년퇴임함에 따라 교장으로 청빙하였다. 고려신학대학원이 뉴저지를 중심으로 수년간을 계속하다가 미주 한인들의 중심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고신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를 느껴 이근삼 박사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이동하고, 동부와 서부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근삼 박사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에반겔리아대학교는 독립건물을 마련했고, 꾸준한 발전을 하면서 대학 설립 25주년을 맞았다.

오늘의 재미총회는 동부, 서부, 중부, 중남부, 서중, 북서, 수도, 남미노회 등 여덟 노회로 구성되어 있고, 130여 교회가 속해 있다. 그동안 꾸준한 선교사업으로 선교지에서 개혁주의 교회 건설에 매진하는 선교사들이 있다. 재미총회가 설립 40년이 가까워 오지만, 교회 수에 있어서나, 교회의 규모에 있어서 여전히 한인교회들 가운데 작은 교단, 작은 교회에 머물고 있다. 많은 교회가 미자립교회이거나 생존에 급급한 교회들이고, 지나치게 목회자의 헌신에 의존하여 운영하다보니, 목회자 은퇴 후 교회가 통합하여 운영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겠다.

3) 고신교회의 교육 정신

고신교회는 초기부터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를 두고, 이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했으며, 1960년대부터 분명한 교육철학을 정립하고 교육 사업을 시행해 왔다. 재미총회의 교육정신은 한국총회의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60년 승동총과의 합동과 두 해만에 환원의 소용돌이를 거친 후에 제 14회 총회에서 설치된 교과과정 심의위원회는 총회의 교육이념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설정하였다.

교육이념: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Westminster Standards :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문답, 예배지침, 교회정치 및 권징조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교육목적

성경을 가르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한다(예배적 인격).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우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인화적 인격).

자기의 존재 의의와 특별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문화적 인격).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여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견비케 한다.

재미총회는 총회헌법을 제정하면서 고신교회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별도의 논의없이 그대로 채용하여 재미총회의 교육이념과 목적으로 삼았다. 고신교회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은 개혁주의 신앙과 고신교회가 가진 신앙과 경건을 집약하고 있는데, 교육철학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교육의 두 토대: 성경과 개혁주의 정신

재미총회 교회교육의 두 가지 큰 토대는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절대적인 유일의 법칙이다. 이 성경이 재미총회의 신학과 교회교육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고신총회의 신앙과 신학은 또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정신을 따른다. 재미총회에 속한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로서 개혁교회가 받고 이어온 역사적인 경험과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고신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전으로서의 문화적 토양에 의 적절성을 고려하면서 성경적인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한국에서 뿌리내렸고, 이제 이민자로서 미국 한인사회의 토양에서 꽃 피우고자 한다.

2) 교육의 두 방향: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고신교회의 신앙교육은 철저한 성경 교육을 통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바른 신앙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인간상은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하였고,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하며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in the presence of God) 살고자 하던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다. 재미총회의 교육은 이와 함께 바른 생활을 살도록 인도하는 교육의 좌표를 설정하고 있다. 경건한 신앙은 반드시 경건한 삶을 함께 추구한다. 우리의 신앙 전통은 일제 치하의 위기 시대에서도 바른 신앙을 추구했으며, 이제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양성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그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균형잡힌 신앙인, 신앙과 삶에 조화를 이루는 신앙인을 추구하는 것이 고신교회의 교육방향이고, 다음세대에 이어주어야 할 이념이기도 하다.

3) 고신교회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 예배적 인격, 인화협동적 인격, 문화적 인격

재미총회의 교육목적은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 그러한 신앙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향하는 세 가지 인간상을 설정하였는데, 예배적 인격, 인화협동적 인격, 문화적 인격이다. 재미총회의 신앙교육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와 신앙훈련을 통해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가려고 한다. 그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땅과 사회, 그리고 자연세계, 나아가서 일과 직업세계에서 바른 관계를 갖고 살도록 요청한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정병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5.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의 방향

이제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21세기의 세속적 물결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미총회의 교육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할지 그 교육의 좌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성경적 영성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

부단히 변화해 가는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인 사회속에서 언약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고신총회의 교육은 성경적 영성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줄 아는 인간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인격적 그리스도인

21세기 사회는 전문화되고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통합적인 인간상을 모색한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고신총회는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 형성을 교육목표로 삼아야 한다. 참된 교육은 우리의 전존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적으로 응답하는 교육이다. 이것은 고신교회가 가진 교육철학 중의 하나이다.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현대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모든 정형을 깨뜨리며 전통을 거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신앙은 모든 전통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리지 않는다. 개혁주의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의 전통과 신앙고백의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을 언급하며 그의 신앙이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나온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딤후 1:3-5). 우리 총회의 교육은, 옛것이라면 무조건 무시해 버리는 사회문화 속에서 버려야 할 잘못된 구습은 과감하게 버리고,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공교회의 전통과 신앙고

백의 전통은 기꺼이 보존해 가고자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우리 고신의 정체성 확립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재미총회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분명히 가르쳐 건전한 교회 의식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문화의 변혁자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을 인간 삶의 핵심적 영역으로부터 주변화시키고, 인간의 삶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이원화시키려는 21세기 사회에 대처하여 재미총회의 교육은 성경에 기초하여 문화를 주도하고 변혁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기독교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안목을 길러주어야 한다. 교회교육은 우리 문화의 각 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날이 갈수록 한국교회 구성원들의 탈교회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종교인임을 자처하는 서구적 세속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나아가 전통과 역사의식을 소홀히 하는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 안일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교회에서의 봉사와 전통적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넓게는 기독교공동체의 전통과 좁게는 총회의 전통을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교육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지상교회에서의 예배적 생활과 봉사의 생활이 왜 중요한가를 가르쳐 교회에서의 공예배, 직분, 성례, 언약의 중요성과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인간 형성을 지향하여야 한다.

인본주의 교육의 한계 인식

우리는 현대 사회의 공교육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지를 부모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한다.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위하여 어떤 면에서 신자 부모들마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공교육이 실재를 알게 하고, 반기독교적인 경향과 그 위험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공동체적 의식의 함양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2020년대 사회에 대처하여 재미총회 교육은 언약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로서, 이웃과 더불어(with)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적 삶의 성격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한 주님, 한 소망, 한 믿음 안에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

6. 각 신앙공동체가 해야 할 교육적 노력들

언약의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가정, 교회, 학교, 그리고 사회 등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상호협동적 노력이어야 한다. 교육을 향한 신앙공동체의 이러한 상호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재미총회 산하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적 노력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1) 가정의 신앙교육적인 책임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당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언약의 자녀가 됨을 바로 인식하고, 오늘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앙과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한다.

가정예배

한인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과 신앙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정예배는 가족의 경건생활과 가족간의 영적인 교제와 일치성을 추구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재미총회 산하 교회의 각 가정은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새기며, 말씀을 통해 가족들의 경건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점차 거리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가족 구성원 상호간 신앙적인 대화와 일치를 통해 가족의 신앙과 같은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족 상호간에 사랑의 관계를 유지, 증진시키게 만든다.

말씀 묵상(QT)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규범이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대로 이를 교회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유지해야 하며, 각 가정의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말씀 묵상생활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말씀의 읽기와 묵상을 통해 신앙의 연대가 강화되면, 그것이 자녀들을 보호할 것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신앙교육은 단순한 지식 교육이 아니라 마음(heart)을 구비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절박한 현실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성령께서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터치해 주도록 구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활동에의 참여 지원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회나 학교에서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언약의 자녀들의 교육의 현장인 교회와 학교 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예배나 각종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정기적으로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자녀들의 신앙교육 상황을 이해하고,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다.

학교교육에의 참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교회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학교의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이로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특별히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유해 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른 학부모나 교사나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2) 교회의 교육적 책임

교회는 가정과 함께 언약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적인 주체이다. 교회는 교육을 본질적인 사명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께서 제자들과 교회에 교육을 당부 하셨고, 교회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여야 한다.

교회의 교육적인 책임의 자각

교회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교회 구성원들의 이와 같은 책임의식의 자각으로 교회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적, 재정적, 물질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부서의 설치

교회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작은 교회의 경우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하면서 가족의 신앙적 일치를 추구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아동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교육부서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교회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교회의 교육부서는 구성원의 크기에 따라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장년부, 시니어부 등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회의 규모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회교육 지도자의 초빙

교회교육의 효과는 단순히 건물, 재정, 시설 등과 같은 교육의 물적 여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잘 준비되고 헌신된 교육 지도자가 교회교육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교회교육이 전반적으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했던 것은 교육전문가 양성과 배치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마다 규모가 작고, 자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유급사역자를 청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총회적 차원에서 교회교육의 발전과 질적인 성숙을 위하여 평신도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교회의 교육적 여건의 재정비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교회의 제반 교육 여건

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시설은 청소년들을 배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 교회의 교육적 여건을 재정비하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편안함이 있는 곳, 청소년들을 받아주는 곳,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은 마을, 곧 공동체에서 자라는 법이다.

예배 훈련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부모를 교육하고 부모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 자녀 양육의 기본적인 내용과 신앙의 전반에 대해 훈련하고 배우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가정예배도 가정의 가장이 가정예배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신앙교육은 예배, 성경공부, 교제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도 예배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신앙교육에 아주 중요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참된 경건과 바른 삶의 훈련을 위하여서는 예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린이 예배나 유스그룹 예배 등 각 교육기관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 그리고 개혁교회의 전통에 비추어 예배를 준비하되 어린이나 학생들의 문화를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의 투입과 교육관 설비

교회는 구성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재정을 투자하도록 힘써야 한다. 교육이 재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재정의 적절한 투입과 합리적인 집행이 없이는 효과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교회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기관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한 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한인교회의 특성상 교육관 준비나 교육재정의 투입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교회는 교회당을 건축하거나 임대하게 될 때 목회와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다음세대를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공간과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준비하여야 한다. 교육관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할 때, 목회자나 교사 가정, 혹은 지역의 공원이나 시설들을 활용하여 교육과 친교의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교회와 가정의 협력

한국총회와 달리 재미총회 교회의 분포나 활동을 고려할 때 교회간 협력이 여의치 않다. 언약의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열린 교육’ 기회를 통해 부모들을 초청하여 학부모협의회(PTA)를 갖고 교회의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부모의 협력을 구하고, 가정은 상담을 통해 자녀들의 가정생활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기독교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체계화

교회의 신앙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뒷받침되어,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재미총회 산하 교회의 경우 규모가 문제가 되므로, 목회자-교역자간 소

통이 강화되어야 하고, 상당한 규모가 되는 교회는 교육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3) 노회의 교육적 책임

노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개체 교회가 나뉘어 여러 개체교회가 되었으므로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회는 단순히 소속한 교회들을 위한 행정적인 처리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작은 교회가 많은 재미총회 산하 교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합 성경학교 실시

같은 지역에 있는 오회 산하의 교회들이 협력하여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한다. 작은 교회들의 실정에 독자적인 성경학교를 개최하기 어려우므로 연합하여 실시하면 강사 선정, 프로그램 운영, 재정 운용 등에서 효과적이다. 같은 생활권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활동을 준비할 수도 있다.

SFC수련회 실시

노회 단위의 유스그룹 수련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의식을 갖게 한다. 노회 교육부 혹은 위원회에서는 SFC수련회를 개최하는 경우 좋은 강사,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노회 혹은 지역의 중심되는 교회가 조금 수고하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사 훈련 및 부모 훈련

전통적으로 교회의 교육 사역은 평신도 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교사들의 헌신은 교회 교육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교회는 지속적인 교사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지도력과 교육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총회교육원에서는 총회교사대학, 총회성경대학, 교리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미국 한인교회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회가 부모를 교육하는 일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는 가정의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Zoom을 활용하여 총회적으로 교사 양성에 고나심을 갖도록 한다.

그리스도인 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

우리는 공교육의 현장에서 참된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교사들을 조사하고 이들이 교육의 쇄신을 위해 힘쓰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야 한다. 신앙과 교과목이 통합된 교육과정을 갖고, 행정과 가르침 등 모든 면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김치한 일이다. 노회적으로 이들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용기를 가지고 기독교교육을 실천하고 기독교학교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후원하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교사의 활동과 연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와도 같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보기에 합당한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야 하며, 그동안 익힌 교육과 훈련, 은사와 경험에 따라 학생들에게 참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와 함께 주간중에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격려하여 학교 안에서 성경공부와 기도, 교제와 활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를 따라 학생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 교사는 학교에서 동료 기독교 교사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기도와 성경공부 등으로 학교 안에서 기독교 교사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독교 교사들과 연대하여 기독교적 시각에서 어떻게 사명을 이룰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기독교 교사로서 신앙과 삶, 학문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4) 총회의 교육적 책임

총회는 소속 개체교회와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총회는 노회의 행정적인 처리를 주된 임무로 하지만, 교육과 선교, 행정과 봉사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노력하고 노회와 교회의 유익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총회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연구와 개발에 힘쓰게 하고, EU기독교교육학 교수 등 이론과 실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한다. 개별교회의 교육과 SFC는 같은 대상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관계의 정립을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통합, 혹은 동역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교육정책에의 관심

재미총회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갖고 교육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그 정책은 총회 산하 전국교회의 교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각 교회에서는 총회의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교육 계획을 세우거나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회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목회자 교육이나 교육지도자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회교육 역량의 강화

Evangelia University가 지난해 교육학석사(MACE) 과정과 박사(Ed. D.)과정을 설치하여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교육 전통에 입각하여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Evangelia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과와 협력하여 공동연구, 인재 양성, 재미총회 소속의 박사과정생 장학금 지급, 논문집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총회 산하 교회에 속한 교육지도자들의 인재 양성에 협력하고, EU 부설기관인 교회교육연구원과 협력하여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연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총회의 교육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한다.

교회교육 지도자 양성

재미총회 산하교회에서 일정한 규모가 아니면 EM사역자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총회적으로 EM사역자 양성에 관심을 갖고, 사역 공부 격려, 정기적인 장학금 지급, 자양성 프로그램 소개, EM사역자의 연대 등을 통해 이들을 격려한다. 총회산하 교회의 EM사역자들의 연구개발 모임을 장려하여 사역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멘토를 제공한다. 작은 교회에서는 재정이나 학생 수 등을 고려할 때 EM사역자 초빙이 어려우므로 잘 구비된 평신도 가운데서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재미총회 공식 교육교재의 개발 준비

재미총회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인력과 재정 등으로 볼 때 총회 산하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회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장기적인 연구와 협의를 통해 총회적으로 교육정책 개발, 지도자 교육으로 신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작은 교회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연합 교사교육, 연합VBS, 연합 SFC수련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권장한다. 앞으로 재미총회 산하의 교회들은 총회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개발, 사용함으로써, 고신교회 안에서 신앙정신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고신교회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을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양성하도록 협력한다.

기독교 학교(Christian school)을 위한 기도와 지원

모든 기독교 사립학교가 교육당국의 통제를 받는 한국사회와 달리, 미국은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 기독교적 정신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러한 학교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신앙교육을 위해 귀한 기회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학교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본래의 설립 정신에 따라 운영되며 복음 전파와 기독교적 전인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참여하며 격려해야 한다. 가능하면 기독교 학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들을 격려해야 하며,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교육목적을 재정비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기독교 인재 양성

교회교육은 문화의 각 영역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도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이러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과 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통해서 이러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기독교 사역자의 지원과 격려

교회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다양한 기독교 사역자들이나 기관들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

고 그들이 해당 분야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교회는 이들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필요한 기구들의 설립과 운동을 통해 기독교적인 문화사역이 주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7. 맺는 말

언약의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신성하신 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한 사명이다. 성경은 한결같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교육의 성패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 오늘의 우리 시대와 사회는 고도의 지식과 정보의 사회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미래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그 활용도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인간의 지식과 정보는 인류를 파멸로 인도할 수도 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이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통제와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재미총회는 2020년대 오늘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회와 인류사회의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이 교육지침서를 근간으로 재미총회 산하 전국교회와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와 사회의 교육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다 더 일관성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발전 계획(2019-2024)

성경의 가르침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마 4:23, 9:35)과 마지막 명령(마 28:19-20)을 통해 볼 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속한다. 재미총회는 1985년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노회를 구성한 이래 설립 34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8노회, 134교회(2019년 총회주소록 기준)를 이루고 있지만, 교회의 규모가 적고, 인적, 재정적 자원이 열악하여 교회 성장과 교회교육의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총회와 산하교회의 교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총회교육위원회는 이같은 재미총회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산하교회의 교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34회 총회의 결의에 의해 수임 연구한, 재미총회의 교육발전 계획(2019-2024)을 다음과 같이 수립, 추진하고자 한다.

1. 교육발전 계획 준비과정

- 1) 제34회 총회 제1차 교회교육 센서스 결과 분석: 센서스 결과, 총회 연구 발표와 논문 참고
- 2) 제34회 총회 교육포럼 플러어 토론의 의견 수렴.
- 3) 교회교육 지도자 세미나 반영: 교회교육 지도자 세미나와 교육위원 세미나의 의견 수렴.
- 4) 전국교회 의견 수렴: 정책이 준비된 후 2주(2019, 9. 17-30) 동안 총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국교회와 목회자의 의견을 수렴.
- 5) 총회교육위원회 확정, 총회 보고: 제35회에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 교육정책으로 채택, 추진.

2. 교육발전 계획의 방향

- 1) 성경이 제시하는 교육하는 교회, 건강한 재미총회 지향
- 2)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재미총회의 교육현실을 고려, 실현 가능한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 3) 재미총회와 산하교회가 교육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정책적인 연구와 지원

3.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발전 계획(1차: 2019-2024)

1) 교육 정책 수립

- ① 제1차 교회교육 센서스(2018)를 주요내용을 노회에 제출하는 교회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총회에 현의하고, 이를 총회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초자료 삼는다. (2020)
- ② 교회현황 보고서를 통한 교육현황 통계가 정착하면(2023), 정기적으로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재미총회의 교육과 목회의 방향을 제안한다.
- ③ SFC전국대회시 EM위원회와 SFC위원회의 세 위원회 위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총회와 전국교회의 교육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2020)
- ④ 재미총회의 '교육지침서'를 작성하여, 총회와 교회가 힘써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021)

2) 교육행정 정비

- ① 총회 교육위원회 규칙을 제정,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2019)
- ② 교육위원 세미나시 노회 교육부장(위원장)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한다. (2019)
- ③ 수년 간 논의해 오던 교재개발을 위한 전문 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 ④ 해외총회간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연대하고, 그 참여를 확대한다.
- ⑤ 교회학교의 교재개발을 통해 재미총회의 교육 연구와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총회 교육을 연구, 시행할 전문기구로 총회교육원(KPCA Educational Center) 설치를 추진한다. (2022)

3) 교재 발간 추진

- ① 재미총회 산하교회와 미국의 한인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신앙교육 교재 발간의 종합 계획을 수립, 총회에 보고한다. (2019)
- ② 한국 총회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총회교육원의 축적된 교육사역과 교재를 미국 한인교회의 현실에 맞게 번안, 출판과 공급을 통해 재미총회 산하교회와 미국의 한인교회에 개혁주의 신앙과 정신을 고취시킨다.
- ③ 교재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교재개발 세미나를 개최하고(2019. 12), 교재 어린이(한영), 유스그룹(한영), 성인(한글) 각 2종씩을 2020년 10월 재미총회까지 출간하도록 한다. (2020)
- ④ 노회의 추천으로 교재개발 사업에 함께할 번역, 전문 인력을 파악하고, 유급 스텝을 중심으로 교재개발을 추진한다.
- ⑤ 향후 3년에 걸쳐 교회학교와 유스그룹의 교재를 출판 공급한다.

4. 교육재정 확보

- ①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첫 3년 동안 총회의 특별지원금(매년 10,000불)을 요청한다. (2019-2021)
- ② 교육위원회 산하에 전문기구를 설치 전 단계로 교재개발교회 협의회를 설치하되, 교회와 개인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교재개발을 하도록 한다.
- ③ 총회 교재 개발과 공급을 통해 제3년차부터는 재정의 자립기반을 구축한다. (2022)
- ④ 교재 연구와 개발, 출판을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1차적으로 하프타임 수준의 유급 스텝을 두어 운영하고, 향후 사업에 정착되면 전담사역자를 두어 운영한다.

제35회 총회 제출, 승인

제36회 총회 제-회 교육위원회 일부 조정